한국청소년연구 제23호 1995 겨울

청소년 환경살리기활동*

한 승 희**
이 완 수
이 춘 화
송 선 희

Ⅰ. 개발의 배경과 목적
Ⅱ. 개발 내용과 과정
Ⅲ.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Ⅳ. 요약 및 제언

Ⅰ. 개발의 배경과 목적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흔히 태아와 모체의 관계로 비유되곤 한다. 모체는 태아에게 영양소와 생존할 수 있는 생리적 조건을 공급하고 태아의 신진대사를 돕는다. 하지만 태아가 지나치게 성장하면 모체의 건강은 손상을 받고 이것이 악화되면 피해가 태아에게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은 사회 및 구성원에게 모체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배출하는 각종 폐기물을 무기물로 환원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인류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의 자연은 인류에게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인간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보고였고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은 인류에게 정복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로도 계속되는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 인간의 자연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로써 오늘날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타인과 자연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편리함을 추구하여 양산된 일회용품의 범람과 자동화에 따른 에너지의 과소비는 다른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4년도 연구사업인 '환경살리기활동'을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한승희(연구실장), 이완수(선임연구원), 이춘화(선임연구원), 송선희(연구원)임.

사람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연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려 생태계의 순환에 해를 미치게 된다. 이러한 비자연스러운 생태계의 흐름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피해를 미치게 되는 것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딛고 사는 땅에서 쉽게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합리주의 내지 이성주의와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선진 산업국가의 자원남용의 부산물인 환경문제를 거론할 때 인용되는 마르크의 인류사회 3시대구분은 인간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18세기 말까지 계속된 자연의 리듬에 경제활동을 종속시키는 자연우위의 농업시대이다, 산업혁명의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이전 단계이다. 둘째는 20세기 전반까지의 자연에 대해 경제를 우선시키는 공업시대이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정복의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공업화를 이룩하고,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개발의 부산물이 나타났다. 현대의 환경파괴는 공업화 시대의 당연한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시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이다. 개발로부터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간활동과 자연간의 생태계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자연우위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다. 즉, 자연환경을 무한한 소비재로 여겨던 자연관에서 탈피하여 경제개발의 동반자이자 쾌적한 환경의 제공자로써 기능을 이해하여 산업화, 도시화를 조정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구분은 선진국의 산업발달을 위한 서구의 역사적 맥락이기 때문에 한국(이와 유사한 경제개발 도상국들)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약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은 마르크가 구분한 단계로 표현한다면 2.5시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환경보전 중심의 제3시대의 특징을 보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보호는 자연 우선주의적 산업구조의 조정보다는 인간과 사회의 욕구를 어떻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를 위한 청소년 수련장의 조성금지가 아니라 환경평가에 따른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수련장 건립계획의 수립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발전이 보존보다는 우선시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양자간의 균형을 꾀한다. 또한, 이러한 우리 나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노력 외에 국제적인 압력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복잡한 국제역학 관계의 논의를 떠나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국제적인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혁신적 기술의 개발보다는 사회, 경제 및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사회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환경파괴를 줄이고 나아가 근절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능한 환경파괴를 억제하고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또한 개발될 수련거리는 공해를 추방하는 사후처리의 활동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인식시키고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수련거리 개발에 주안점을 둔다.

II. 개발 내용과 과정

환경살리기활동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환경살리기활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담고 있는 지도자용 지침서와 지도자용 지침서 개발의 타당성과 개발 배경 및 과정 등을 설명하는 개발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살리기활동 수련거리의 개발을 위한 과정중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한 대표적인 절차는 활동개발 계획안 발표회, 두번에 걸친 자문의뢰, 그리고 중간보고서 발표회이다. 첫째, 활동의 기본 구성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6월 25일까지 자료수집과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계획안 발표가 1994년 6월 28일 개발원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 발표회를 통하여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 보안이 되었다. 수정이 가해진 계획안을 개발방향설정을 위한 자문회의의 자료로 활용을 하였다.

둘째, 자문위원은 두 가지 범주로 위촉이 되었다. 하나는 활동의 개발방향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위원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내용구성을 위한 전문가의 개별자문위원이다. 자문회의는 활동계획안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한 것으로 연구진이 개발하려는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문위원은 학술적인 전문가보다는 청소년 활동의 수련거리 개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현장에서 청소년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위촉하였다. 자문회의는 김갑수(서울시정개발원), 남상준(한국교육개발원), 박현숙(환경운동연합), 천경필(환경처) 및 최수웅(대왕중학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1994년 7월 6일 (수) 9 : 30에 한국청소년개발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자문회의와는 별도로 개발내용구성을 위한 전문가의 개별자문이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학자 세 사람을 개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다.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의뢰하였고 각 자문위원은 대담 형식이 아니라 글로 정리된 자문내용을 개발진이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위한 시간은 1994년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주가 설정되었다. 위원명단은 김재면(의사), 정재언(서울대 부설연구소)과 윤제용(아주대학교)이다.

셋째, 중간보고서 발표회는 1994년 9월29일 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발표회는 원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토론회였다. 환경살리기활동의 개발취지와 목표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 졌고 구체적인 활동내용의 구성의 정교화와 구체화에 대한 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수정과 보완작업이 실시되었다.

III.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살리기활동 프로그램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먼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 줌으로써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는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서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해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인식, 이해, 실행의 3단계 과정을 통해 환경살리기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을 점진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관계망인 가정, 학교, 사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환경살리기활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환경의 감시자로써,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자연이라는 각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주화시켰다. 수련거리의 내용은 계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자문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1994년 9월 29일에 개발원 회의실에서 중간보고서 발표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마지막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1. 인식활동

1) 우리집 환경오염

오염의 원천이 되는 가정 내에서의 사전예방 내지 오염물질 감소를 인식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측면에서 먼저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사전예방적인 활동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일 바람직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집안에서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가볍게 생각했던 청소년 자신의 주변에서 구체적인 환경보호의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만족감과 사회적으로는 환경보호의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카드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집안에서의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실천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여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교, 친구 그리고 환경

학교라는 장은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단체생활의 근간이 되는 학교에서 자기의 의사와 다른 구성원의 의사를 비교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배제하는 활동이 아니라 학교이건 직장이거나 항상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끼리 교육과 같은 주입식 활동이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저절로 느끼고 판단하게 하는데 활동의 의의를 둔다.

환경을 주제로 한 조사와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행위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동네쓰레기지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동네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와 과외활동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므로 동네의 자연환경은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주위에 눈을 돌려 자신의 행위가 이웃과 동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동네환경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를 인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동네환경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환경오염의 현장을 집주위에서 직접 발견하고 환경살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정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4) 그린티어링

그린티어링은 자연을 주제로 하는 오리엔티어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오리엔티어링과 유사하지만 목표점을 찾아가는 동안 자연을 느끼고 환경오염을 인식하며 더 나아가 환경미화를 하는 것을 통하여 다양한 인식과정을 밟을 수 있다. 자연만이 주는 고마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의 수혜자로써 사람의 역할과 공해와 오염의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동시에 깨달아 환경살리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공해현장에 관한 video를

관람하여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리엔티어링을 하면서 우리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직접 느끼고 주변에서 아직 자연순응적인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현장을 가봄으로써 환경살리기의 참여와 이해를 위한 근간을 마련한다.

2. 이해활동

1) 우리집 환경이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쉴 수 있는 가정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자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자연을 가장 먼저 오염시키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환경살리기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환경살리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환경 주사위 게임을 통해서 환경을 살리는 일과 해치는 일을 이해하고, 그 중 인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음식 중에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가공식품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표를 작성해 본다.

2) 친구와 만드는 쓰레기분리대

학교는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는 환경살리기의 방법을 알도록 하는데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환경을 살리는 일들을 학습해 나갈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협동해 가면서 학급내 또는 학교내의 쓰레기들의 종류를 이해하고 분리수거의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환경살리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쓰레기 분류게임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분리방식을 이해하고, 쓰레기 분류를 통해 나온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토론활동을 통해 이해한다.

3) 공해지도 만들기

우리는 환경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환경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환경의 심각성은 쓰레기 처리장이나 커다란 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제일 수 있다. 바로 우리 곁에도 오염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환경이 오염된 지역을 파악해 봄으로써 환경살리기의 출발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된 곳과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봄으로써 환경을 잘 돌보았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비교해 보고, 공해지도를 만들어 봄으로써 어떤 지역에서부터 환경살리기를 시작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 미래의 환경상태를 그려봄으로써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본다.

4) 돌고 돌아가는 세상

우리가 버린 물은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따라서 버려진 물이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쓸 수 있는 물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와 한 번 오염된 환경을 재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물 운반게임을 통해 물의 순환과정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하수처리장을 견학해서 우리가 버린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

아오는가를 알아보고, 하천탐사를 통해 하천오염 현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해야할 일을 생각해 본다.

3. 실행활동

1) 우리집 환경감시원

환경살리기활동은 지금까지 앞에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한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환경살리기를 생활화하려면 먼저 일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집에서부터 실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집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고, 매일 매일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또는 실천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사안들을 기록하고 검토해 보면서 집에서의 환경살리기를 실행해 본다.

손뼉치기 게임을 통해 집에서의 환경실천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자가 나누어 준 환경점검표에 따른 실행 사항을 환경일지에 기록해 각자의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해 봄으로써 가정에서의 환경감시원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환경을 살리는 솜씨자랑

환경살리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환경 오염을 막는 일에 앞장서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환경문제를 검토해 보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방법도 의미가 있다. 학교에서의 환경살리기는 평소에 늘 실천해 온 경험을 살려 그러한 내용들을 글솜씨, 그림솜씨 등 여러 가지 장기들을 이용해 발표하는 학급행사 또는 학교행사를 통해 실행해 보도록 한다. 실천 사항을 발표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환경 보호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포스터 그리기, 벽보 만들기, 신문 만들기, 문집 만들기, 사진 찍기, 슬라이드 만들기, 비디오 찍기 등을 통해 숨은 솜씨를 자랑하고, 환경살리기의 실천을 다짐해 보도록 한다.

3) 우리동네 알뜰시장

우리 동네는 다른 말로 지역사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도 생긴다. 그 중의 하나가 자신에게는 이미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다. 그냥 두면 버려질 물건들을 서로 교환해 쓰는 알뜰 시장을 열어 쓰레기도 줄이고, 폐품도 재활용하고, 이웃과의 정도 나누는 알뜰한 시간을 가져 본다.

이미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모으고 손질하여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중고품교환 알뜰시장을 열어보도록 한다.

4) 자전거에 미래를 싣고

지구에서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도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처럼 소중한 공기가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오염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의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자연 속을 달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자연의 바람을 가르며 캠페인활동을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이점을 홍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한다.

Ⅳ. 요약 및 제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첫째, 환경살리기 활동의 고유의 목적인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자연보호의 실천이다. 단체활동을 통하여 익힌 환경살리기를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효과적이다. 둘째, 자연환경살리기를 집, 학교 및 지역사회 등 각 사회환경과 연관지어 활동을 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환경살리기라는 것은 자연보호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장소에서나 사전에 환경훼손을 막거나 줄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인지하여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긴장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활동이나 마찬가지지만 환경살리기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당위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자체의 생존을 위하여서라도 반드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는 것을 지도자나 청소년 모두가 이해해야 할 것이다. '환경살리기 활동'이라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연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환경훼손은 자연의 자체정화능력을 상실하게 하며, 이러한 피해는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결국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자연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진이 개발하고자 하는 환경살리기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사회관계를 각각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자연 등으로 구역화시켜서 실행가능한 수련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단계로 되어있는 활동내용은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지도자가 융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는다. 더욱이 참고는 지도자들에게는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청소년에게는 수련활동을 전후로 하여 환경에 대한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